“이천오층석탑 환수, 이제부터 ‘시즌2’입니다”

Interview 이천오층석탑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이천오층석탑 환수에 대한 일본 오쿠라문화재단(이하 오쿠라재단)과의 협의를 재개한 것이 이번 방일(訪日)의 가장 큰 성과죠. 석탑 환수가 이제 시즌2로 접어든 만큼 다시 환수 운동의 동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려 합니다.”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 사진)은 11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10~12일 방일 성과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 대표단은 방일 기간동안 석탑을 소유하고 있는 오쿠라재단과 4년 만에 협상을 진행했다. 10월 11일 진행된 협상에는 보문 스님을 비롯해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 서학원 이천시의원(환수위 실무위원), 이우정 환수위 사무처장, 김세진 통역사가 참여했다.

4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당장 오쿠라재단의 실무자인 사무국장이 히데야키 후쿠다(福田秀明) 씨로 교체돼 협상에 참석했다. 오쿠라호텔의 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탑의 훼손도 지속되고 있었다.

실제 석탑 점검을 위해 함께 한 오금석 석예석재 대표(석공예명장)는 방일 보고서를 통해 “잦은 이관과 지진으로 석재와 석재 사이의 이음부분이 많이 갈라져 있고, 이를 시멘트로 붙여놓았다”며 “1, 2층 탑신의 풍화가 심각하고 훼손도 상당하다. 오쿠라재단은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석탑의 훼손 상황을 지적했다.

10월 10~12일 1박 2일 방일
오쿠라재단과 환수 협상 재개
코로나 시기 오쿠라 재단 측
“환수위 활동 종료”로 오인
활동 상황, 국내 성명 전달해
장기화된 환수 운동 ‘새 전기’

부석사 관음상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 환수운동 악영향 우려
“도와주지 못할망정 대못 박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대표단은 10월 11일 오쿠라 호텔에서 오쿠라문화재단과의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5번째가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 뒤로 석탑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오쿠라재단이 한국 측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환수위의 활동이 2019년 종료됐다’ 고 파악해 이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일본 정부기관에까지 알렸다는 점이다. 협상에 나선 환수위 대표단은 당황했지만, 2019년 이후 환수염원탑 건립, 사생대회, 순회교육 등 국내에서 진행된 환수 운동 경과를 설명하고 석탑의 환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오쿠라재단 측에 고지했다.

또한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직접 서명한 환수 지지 성명서와 환수 촉구서를 재단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도 난관이 있었다. 두 문건 내 ‘무단 반출’의 문구가 문제가 돼 재단 실무자인 후쿠다 사무국장이 전달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수위 측은 기지를 발휘했다.

“후쿠다 사무국장이 ‘무단반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성명서와 촉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받을 경우 이천오층석탑이 무단반출 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후쿠다 국장에게 ‘이는 한국의 입장이며,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과 이천시장이 직접 서명한 성명서와 촉구서한이다.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벌어질 파장은 재단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어필했습니다. 결국 재단 측은 PDF전자문서로 받기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4년만의 협상에서 이정도의 입장을 전한 것도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봅니다.”

이제 환수위는 오쿠라재단 이사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환수 협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난 10월 26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를 관음상의 원소유주로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에 대한 준거법 적용을 일본 민법에 두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의 소유권 취득 후 20년 시효가 완료돼 그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음을 판결했다.

“여러 국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 약탈 문화유산이 취득시효와 상관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부석사 관음상 판결은 이를 무시한 최악의 판결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환수 운동 활동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문화유산 환수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스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환수 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09년 이천 영월암에서 첫 주지 소임을 봤습니다. 이때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과 인연이 됐어요. 이제 평택 자비사 주지로 활동하고 있지만, 석탑 환수 원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민-관이 하나가 돼 운영되는 시민 환수운동의 모범입니다. 이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고 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환수를 위해 나아갈 겁니다.”

35돌 조계사 원심회…“불교수어 활성화”

11월 12일 오전 11시, 창립법회
‘불교수어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 온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불교 수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심회는 11월 12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원심회법당에서 창립 35주년 기념법회(오전 11시)와 불교 수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오후 3시)를 개최한다.

창립법회는 1988년 창립 이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와 수어통역과 교육, 인식개선에 앞장서 온 35년간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의 격려사와 내빈 축사, 우수회원 시상,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조계사불교대학 2층에서 ‘불교수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김장경 전 원심회장과 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은퇴목사, 한유 에파타 성당 봉사분과 부분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경환 포교사, 박미애 수어통역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원심회는 불교 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정립한 단체로 평가받는다. 원심회는 한국수화 단어 내 불교관련어가 5개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기본의식인 삼귀의와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 불교수화를 창안했다. 1998년 〈불교수화용어집〉(자비의손길)을 출간했고 2010년부터 불교수화 표제어 1071개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누구나 불교수화사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수화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거나 찬불가를 수화로 통역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게끔 시도했다.

2008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찬불가 55곡과 불교수화단어를, 2013년에는 불교의식 및 찬불가 총 46편을, 2015년에는 ‘천수경’ 수어 역경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금나나 교수,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11월 2일, 일면 스님 위촉장 수여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장 금나나 교수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11월 2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금나나 교수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금 교수는 먼저 미국 유학시절 경험한 생명나눔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렸다. 금 교수는 “홍보대사 제안을 받고 미국 유학 중 운전면허증에 붙어있는 빨간 마크를 보여주며 뇌사상태가 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하던 친구가 떠올랐다”면서 “당시 친구가 멋있다고 생각만 했지 나 스스로 실천하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교수로서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금나나 교수가 생명나눔에도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홍보대사만이 아닌 생명나눔 대표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다
10 · 27법난 추념문화제

조계종, 43주년 맞아 봉은사서
진실규명 · 명예회복 노력 다짐

1980년 신군부가 군홧발로 불교를 짓밟은 지 43년. 희생자들이 하나둘 세연을 접은 가운데 10 · 27법난의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43주년 10 · 27법난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추념문화제가 열린 봉은사는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이 예정된 곳이다. 기념관은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념문화제는 1부 추념법회와 2부 추념문화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성화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정용욱 문체부 종무실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10 · 27법난의 아픔을 되새기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먼저 10 · 27법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헌신하다 올해 입적한 명선 대종사와 피해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10 · 27법난의 피해가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한 채 법난의 기억은 흐려져만 가고 피해자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어 오늘이 자리가 비워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봉은사로 건립 예정된 10 · 27법난 기념관의 의미를 설명하며 불사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스님은 “앞으로 10 · 27법난에 대한 홍보와 교육,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 예우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념관 건립으로 10 · 27법난의 아픔을 국민과 공유하고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종교탄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법난의 슬픔을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진실을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며 “종단은 10 · 27법난을 온전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피해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념문화공연에서는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고금 스님이 법고 시연을, 뮤지컬 갈라팀 어쏘티드가 10 · 27법난 추념극을 선보였다. 봉은국악합주단과 국악인 박애리씨도 무대에 올라 국악합주 공연을 펼쳤다. 김내영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방석 35만원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황토알파토 수제약제 비누

★ 코로나 예방 효과 증명 ★

피부질환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큽니다.

- 주요성분 : 천연식물성오일, 포졸란, 피톤치드, 히아루론산, 비타민E 등이 함유된 천연 수제비누로 계면활성제와 경화제,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비누 입니다.

기능성 약제비누
한박스(3개) 3만원
식약처 허가 업체 제조

“황토알파토”란? 백악기 시대의 화성암으로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여 세계에서 주목하는 고급미용재료 입니다.
아주 가벼운 광물로 다공성의 공기 구멍을 갖고 있어 피지 및 각질의 흡착 및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무기질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젊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성 피부에 효과,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아 단단하고 좋습니다.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하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 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다.



베개 20만원

그림액자난로

공기오염 NO! 탄소배출 NO!
전자파 NO! 전기요금 걱정 NO!
난방비는 내리고!
건강난방은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건강난방



실내 · 외 활용도 높음, 보조난방
★ 열효율이 높아 화장실 동파예방 ★

탄소에너지 난로 국내산입니다.
최고온도 105℃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난방으로 90%이상 절감

공기중 산소를 태우지 않고 수분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까이 사용해도 전자파 발생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빛이 공기를 투과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도달합니다. 음이온 공기정화 기능으로 인체 살균작용, 향균 및 곰팡이 제거효과 ※ 야외화장실 추천(화장실 냄새제거) 음이온발생※

무색 표면 온도가 100도 넘어도 색깔이 없습니다.
무취 공기중에 산소와 음이온이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무음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액자난로 15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전제품 국내산